

vol.144

UNEA 5.2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 (1) 협약의 결의안은 어떻게 채택되었나
- (2) 결의안의 주요 내용
- (3) 국제협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플라스틱의 해양쓰레기

CONTENTS

Special Issue 특집

- 3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결의안 어떻게 채택되었나
- 7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의 주요 내용
- 9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어떻게 만들어지나

Story Note 최근활동

- 13 오션, GGGI 회원 가입
- 16 출범한지 벌써 1년, '바다기사단' 서임식 개최
- 19 '오션스 40' 강사 양성 과정, 4월 28일까지 참가자 모집

International Trend 국제 동향

- 21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초안, 합의 없이 4차 정부간회의 마감

Seminar Report 세미나 증계

- 23 439회 | 오염부터 해결책까지 - 제4장: 도전, 대응, 혁신, 해법, 기회
- 26 2022년 4월 오션 세미나 계획 공지

News Clip 해양환경 뉴스

- 28 "유엔 플라스틱 규제협약 협상기간, '2년의 면죄부' 아냐"
청주 서원구 특색사업 '담배꽂초 수거보상제'
'상괭이 폐사' 잇따라...그물 탈출장치 의무화 시급
비닐 먹고, 마스크에 걸리고...쓰레기에 괴로운 갈매기

Notice 공지사항

- 29 환영합니다!
- 30 2월 회비 납부 현황 및 후원 방법 안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결의안 어떻게 채택되었나

기후변화협약만큼 지구 환경에 중대한 변화 가져올 역사적 사건

이종명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 jmlee@osean.net

편집자 주

2022년 3월 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al Assembly, UNEA) 두 번째 본회의(UNEA 5.2)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새로운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은 기후변화협약에 비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협약으로 평가된다. 이번 호에서는 ①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의 과정, ② 결의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③ 향후 새로운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소개한다.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안 통과 후 기립 박수를 하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 대표단

제3차 유엔환경총회 해양플라스틱 대응 방안 검토

유엔환경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추진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제3차 총회부터였다. 2017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대응: 관련 국제·지역·소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과 접근의 효과성 평가’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해양플라스틱 오염과 연관된 현존하는 국제 기구와 협약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는데서 나타나는 주요 격차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3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현상 유지, 두 번째는 기존 틀을 보강하고 산업 관련 대응을 추가하는 방안, 세 번째는 새로운 국제 협약 창립이었다. 현상 유지는 해양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대안이 될 수 없었다. 두 번째 대안인 바젤협약 등 기존 틀을 강화 발전시키는 방안은, 효율성은 있지만 법적 강제력보다 자발성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협약 추진이 필요하고, 이것은 두 번째 대안인 기존 틀의 확대 발전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다. 제3차 유엔환경총회는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임시 전문가 위원회(ad hoc open-ended expert group)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전문가위원회 운영

국제 전문가위원회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4번의 공식 회의를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기존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 대부분의 나라나 소지역 단위에서 대중 홍보나 연안정화와 같은 사후 대응 활동만 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그리고 폐기물 관리와 같은 사전 예방 활동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다만, 새로운 해양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약의 범위와 법적 구속력 여부 등에 대한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는 새로운 국제 협약의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을 중립적 입장에서 제시하는 수준에서 작성되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의 몫으로 남겨졌다.

¹ <https://www.unep.org/environmentassembly/expert-group-on-marine-litter>

플라스틱 오염인가, 해양플라스틱 오염인가

코로나 팬데믹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2021년 1월에 개최 예정이던 제5차 유엔환경총회는 온라인 회의로 바뀌었고, 주요한 결정은 대부분 2022년 열릴 두 번째 본회의로 미루어졌다.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와 행사에서 ‘새로운 해양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구적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엄청난 일회용품 급증은,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열린 2021년 9월의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 장관급 컨퍼런스’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 협약을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를 UNEA 5.2에서 설립하자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는 우리나라도 참여했다.

2021년 10월, 르완다와 페루 정부가 공동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 초안을 유엔환경총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초안은 대한민국을 공동제안자로 포함하고 있고, 이후 진행될 협상은 물론 최종 채택된 결의안의 기초가 된다. 이후 2021년 12월에 일본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목에 ‘해양플라스틱 오염’이 들어간 별도의 초안을 제출한다. 인도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일본과 인도의 제안은 총회 준비를 위한 비공식 협상 과정에서 르완다와 페루 초안에 통합된다. 특히, 이 과정에는 유엔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포럼’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은 르완다-페루 결의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².

기립 박수 후 이어진 각국 정부 대표단의 지지 발언

드디어 2022년 3월 2일 제5차 유엔환경총회 두 번째 본회의 폐회식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총회 의장이 결의안 통과를 선언하자 유엔환경계획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일어나 오랫동안 박수를 쳤다. 이번 유엔환경총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의로 평가 받고 있는 이유가 유엔환경계획 창설 50주년에 열렸다는 것과 함께, 새로운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추진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역사적인 결정에 함께 한 사람들의 벅찬 감동이 박수와 함성으로 표현되었다.

이전의 여러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는 침묵을 지키던 대표단들이 플라스틱 오염 결의안 통과 후에 너도나도 발언권을 요청하여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통과된 결의안의 초안을 처음 제출했던 르완다는 회원국들이 ‘플라스틱 협정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롭게 만들어질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우르과이, 노르웨이 등이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세네갈은 새로운 협정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사전회의를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스위스와 모르타니아 등의 지지를 받았다.

² <https://www.unep.org/events/global-major-groups-stakeholders-forum-gmgsf/online-global-major-groups-and-stakeholders>

오션, 10년 전 새로운 국제협약의 탄생을 전망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이하, 오션)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해양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의 탄생을 이미 10년 전에 전망했다. 2011년 하와이에서 열린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 컨퍼런스에서 ‘호놀룰루 전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직접 참가하여 살펴 본 국제동향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당시까지 해양쓰레기 대응은 각 나라나 이해관계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국제협약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다. 홍선욱 등(2013)은 ‘호놀룰루 전략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런 흐름을 소개한 바 있다³.

오션은 이번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에도 힘을 보탤다. 먼저, 2021년 9월에는 ‘국제 폐기물 플랫폼(IW4 P)’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해양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지지 성명서에 참여했다. 또, 2022년 2월에는 전세계 과학자 선언에도 참여했다. 오션은 기관으로, 홍선욱 대표와 이종명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동참했다. 과학자 선언에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플라스틱의 전생애 주기를 포괄하고, 토착 지식을 포함한 과학적 증거 기반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 통과 후 오션의 이세미 국제협력 팀장은 국제환경법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를 통해 플라스틱 협약 웹사이트(ww4.w.plasticstreaty.org)에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 결의안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더 이상 미온적인 대응만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더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를 약속할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기념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 플라스틱 협약 웹사이트에 소개된 오션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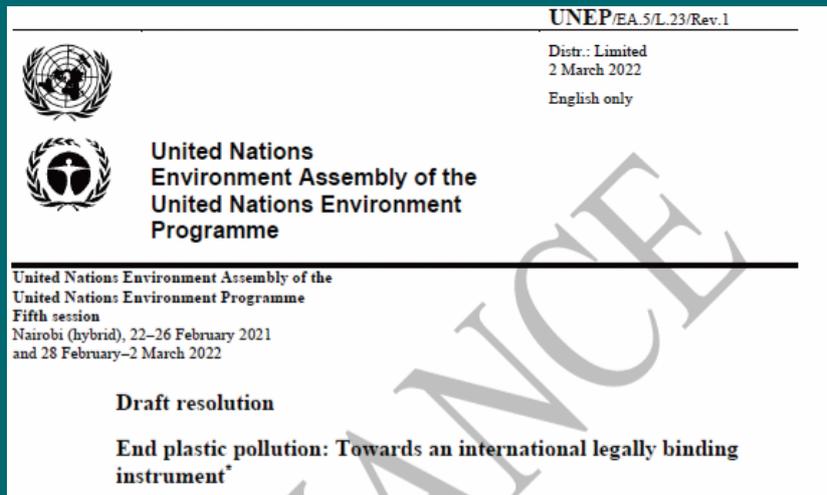
³ <https://cafe.naver.com/osean/1348>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의 주요 내용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 규제 지향

이세미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 crhee@osean.net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 표지

UNEA 5.2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목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이에 대해 협상할 정부간 협상 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는 것이다¹.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룰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한 국제협약만큼 협상해야 할 내용도 많다. 이 중 많은 국제 시민 및 환경단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제일 반가운 소식이다. 플라스틱 상품의 디자인부터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와 순환 경제 접근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는 새 플라스틱의 생산을 현저히 억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이기도 하다. 그 외 플라스틱 오염의 예방, 저감 그리고 종식을 위한 국가들의 행동 계획을 촉진하고 이를 각국이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¹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38525/k2200647._unep-ea-5-l-23-rev-1._advance.pdf?sequence=1&isAllowed=y

2022년 정부간 협상위원회 구성, 2024년 마무리 목표

본 결의안은 정부간 협상 위원회가 다룰 사안들도 나열했다. 이 중 다자간 기금을 포함한 재정 지원 메커니즘 마련의 필요성과, 일부 협약 조항에 있어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에 대해 협상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 메커니즘은 대부분의 다자간 환경 협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의 재정 지원 메커니즘인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과 같이 큰 금액의 재정 메커니즘이 있는 협정도 있고, 소규모의 금액으로 이뤄진 메커니즘도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해 어떤 재정 지원 메커니즘이 구현될지 아직 뚜렷하지 않으나 2024년까지 기업 및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체결 전이라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자발적 조치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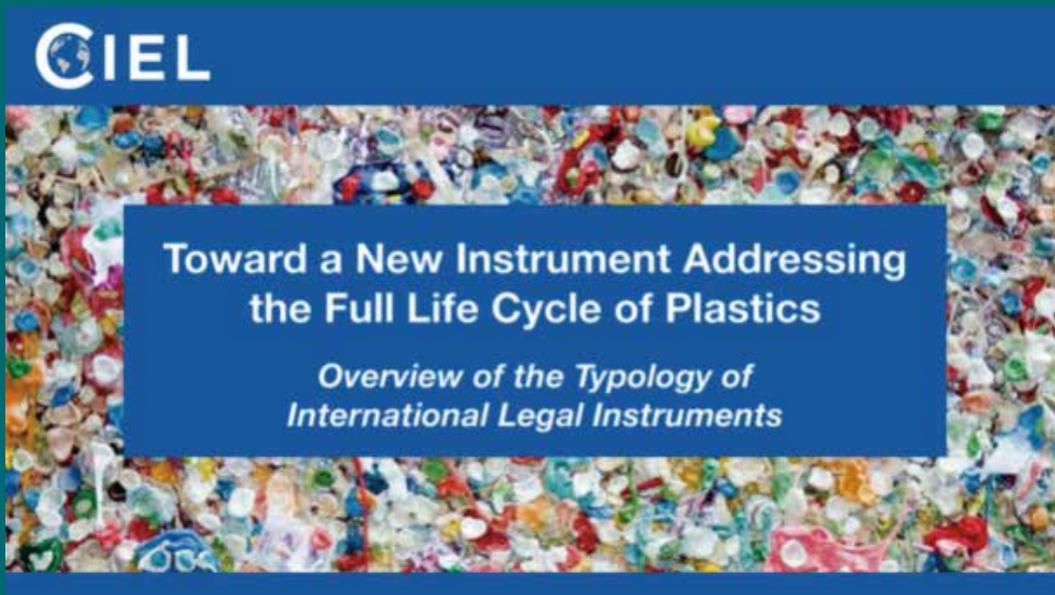
위 내용에 더해 결의안의 마지막 두번째 문단에는, 각국이 플라스틱 오염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및 강화하고, 자발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추후 채택되기를 희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라는 말이다. 개인 및 국가, 그리고 기업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 일상에 깊게 자리잡은 플라스틱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모든 나라와 사회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지가 있어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할 수 있고, 순환 경제의 실현이 가능해 진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어떻게 만들어지나

국제환경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살펴보는 협약의 명칭과 체결 과정

이유리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yurilee@osean.net



▲ 국제환경법연구센터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보고서 표지 이미지(©CIEL)

조약, 협약, 협정

최근 3년간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관한 공식 제안서만 10개가 제출되었다. 제안서는 ‘새롭게 헌정된 국제 협정(A new dedicated global agreement)’, ‘플라스틱 오염 협약(A convention on Plastic Pollution)’,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협약/조약(A new legally Instrument/Treaty)’ 등 다양한 명칭을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 협약을 일컫는 다양한 명칭들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체결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하 내용은 국제 환경법 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에서 발간한 보고서 ‘플라스틱의 전생애 주기를 관할하는 새로운 수단을 향하여(Toward a New Instrument Addressing the Full Life Cycle of Plastics)’의 주요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그 협의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조약의 체결은 안보, 경제, 해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에 관해서만 170개 이상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외에도 조약을 나타내는 명칭에는 헌장(Charter), 의정서(Protocol), 선언(Declaration) 등이 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명칭인 조약과 협약, 협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약(Treaty):

격식을 가진 정식 문서로 평화, 동맹, 방위, 영토 등 주로 당사국 간의 정치적·외교적 기본 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내용으로 한다.

예) 한·미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1953)

2. 협약(Convention):

주로 특정분야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조약이다.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를 통해 체결되는 조약인 경우에도 협약(Convention)이라고 한다.

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Basel Convention)

3. 협정(Agreement):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와 관련한 것으로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안에 대한 정부간 합의에 사용되는 명칭이다.

예) 조세협정

국제 협약은 명칭보다 내용이 중요

주체와 내용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조약, 협약, 협정 모두 ‘국제적인 합의’이다. 이러한 명칭의 차이를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조약을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이 단일의 문서인지 다수의 문서에 구현되어 있는지는 관계가 없고, 또 명칭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조약은 1) 서면으로 2) 국가 간에 체결되어야 하며 3)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엔 법률사무국에 의하면 조약은 공식적인 명칭에 상관없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모든 문서를 포괄하는 총칭이다. 또한 국제법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협약의 명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조항인 국제법 제36조 제2항과 재판 준칙인 제38조 제1항에서 각각 조약(Treaty)과 협약(Convention)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이렇듯 문서의 명칭이 국제법상 그 문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협약의 당사자들은 그 협약의 일반적인 의도를 반영하는 명칭을 선택하여 쓰고 있다.

협상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식

유엔환경계획은 다자간 환경협정(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을, ‘1969년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정의를 반영하여, 환경과 관련된 조약, 협약, 의정서 및 기타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총칭으로 정의했다. 다자간 환경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범지구적 환경보호를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200여개의 협정, 협약 및 의정서를 포함한다.

국제회의의 결의안은 국가들이 협상할 문서의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문서와 일치하는 조약 체결 접근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때로는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검토 후, 결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협약의 유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적인 협약/목표 접근법(Substantive convention/targeted approach):

개별 기구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특정 환경 문제를 선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속서(annex)/부록(appendix)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협약 체결로 이어진다.

2. 기본 협정/협약 접근법(Framework agreement/convention approach):

문제가 되는 영역에 대해 일반적인 관리 시스템(general system of governance)을 만들고, 그 후 의정서(protocol)에서 보다 구체적인 약속과 제도적 합의를 만들어 기본 협정/협약을 이끌어 낸다.

3. 복합 접근법(Hybrid approach):

실제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위 두 접근법이 완전히 구별되지는 않고,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복합 접근법에서는 특정 조항을 포함한 기본 협약이나 일반 조항으로 구성된 실질적 협약을 추진하는데, 많은 경우 의정서와 부속서/부록에 의해 지원되고 보완된다.

협약의 체결 과정

UNEA 5.2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을 결의함에 따라, 이 협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환경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1) 다자간 협약 체결을 제안하는 국가나 유엔 회원국들은 협약의 초안을 국제기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협약의 본문을 협상하기 위한 기본 문서가 될 수 있다.
- 2) 초안을 작성하고 조정할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교섭국은 실질적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 초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유엔총회나 협상기구로 기능하는 다른 기관은 협약의 채택을 진행하거나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협약문의 채택은 교섭국이 모두 참가하는 국제기구의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지거나, 협약 채택을 위해 별도로 소집되는 외교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 4) 각 국가는 다자간 협약 체결의 질서 있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국의 헌법에 따라서 그 방법과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 5) 유엔에 의해 소집된 협약 체결 회의에서는 회의의 모든 문서와 기록에 대한 점검표를 포함한 공식 기록을 보관하고 최종의정서, 협약의 본문과 채택된 다른 문서를 공표한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채택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은 2022년 내에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까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 세계의 국가 정부는 물론이고, 산업계,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은 협상 과정의 중요한 진전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오션, 세계 폐어구 계획(GGGI) 회원 가입

유일한 한국 비정부 단체로 유령어구 문제 해결에 동참

이세미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 crhee@osean.net
장윤정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yoonie.jang@osean.net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은 세계 폐어구 계획(Global Ghost Gear Initiative, 이하 GGGI)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이 연합은 유령어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오션의 공식적인 GGGI 가입은 오션이 세계 여러 기관과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힘을 보탬 기회를 얻은 것이다. 오션은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연구에도 동참할 계획이며, GGGI에서 전세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할 활동들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오션의 GGGI를 축하하는 공식 트위터 메시지

2022년 3월 8일, GGGI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션의 가입을 축하했다. 이로서 오션은 GGGI에 가입한 최초의 대한민국 NGO가 되었다. 오션의 미션, 활동 경력이 적힌 지원서 제출, 대표자 인터뷰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일정의 가입비 또한 납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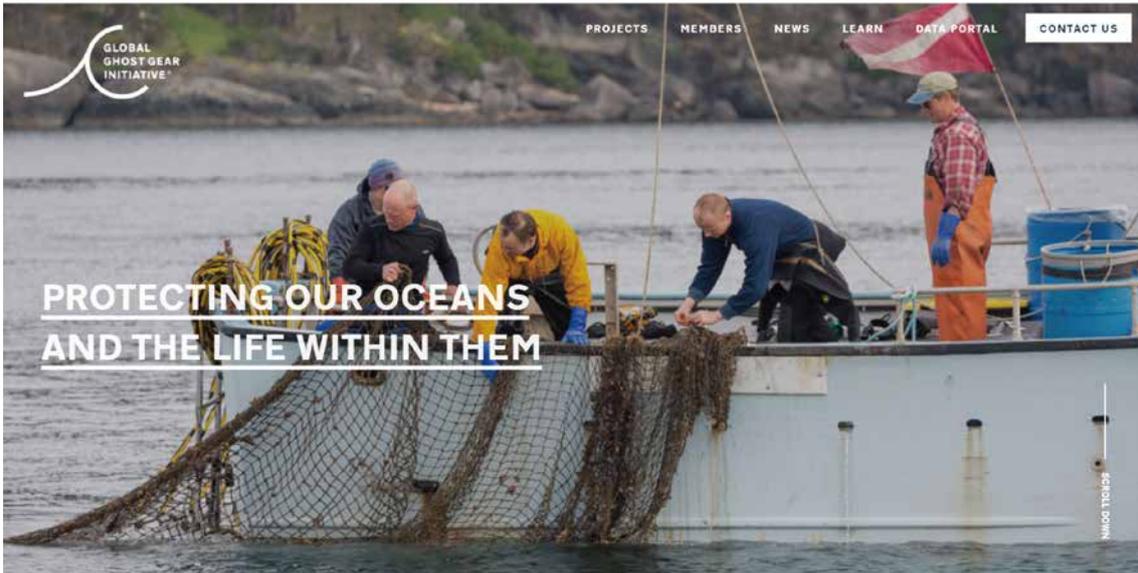


▲ GGGI 공식 가입을 위한 "지원 성명서"
GGGI 멤버로서 추구할 가치와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할 것을 명시한다.

GGGI는 어떤 연합이며, GGGI 가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GGGI는 어업, 민간 부문, 기업, 비정부 단체, 학계 및 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령어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다중 이해관계자 연합이다. 56개의 기업과 60개의 명성있는 비정부 단체, 그리고 다수의 유럽, 북미 및 폴리네시아 국가들이 힘을 모아 해양과 해양 생태계를 유령어구로부터 구할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GGGI를 통해 폐어구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에 오션은 다양한 국제적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예를 들어, 어민들의 폐어구 인식 조사를 실시할 때, GGGI에서 배포한 조사 도구(tool)를 이용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다른 결과와 비교, 분석, 취합될 수 있으며, 해결책을 함께 도출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관련 국제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 GGGI 홈페이지 - 페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폐그물 수거 중

앞으로 오션에서 진행할 페어구 연구는?

페어구의 발생원, 분포, 총량 등 페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페어구 문제가 다루어질 때는 일반적으로 수거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미 버려진 어구 자체를 수거하여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페어구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비용 등 훨씬 효율적이며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션은 GGGI에서 진행되는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페어구 연구에도 동참할 계획이며, 장어 통발 등 다양한 형태의 페어구 연구도 구상 중이다.



출범한지 벌써 1년, ‘바다기사단’ 서임식 개최

첫 기사로 21명 승급

박은진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책임연구원 | ejpark@osean.net

작년 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활동의 장을 열어주고자 출범한 '바다기사단'이 벌써 1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환경에 따라 스카이나이츠, 아쿠아나이츠, 테라나이츠로 전국 곳곳에서 활동했다. 바다기사단은 활동을 독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 자료제출 횟수, 워크숍 참여 등 기여한 바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다. 최초 가입 후 평원, 첫 워크숍 참여 및 녹화영상 시청을 하면 수습기사, 일정 기간동안 최소 3회 이상의 활동을 통해 데이터를 제출하면 기사, 바다기사단 외 다른 분야에서 도움을 준 경우 명예기사, 기사이면서 기사단 내에서 소규모 기사단을 만들어 활동하는 단장은 기사단장 등이다. 평원과 수습기사까지 있었으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21명의 기사가 임명되었다. 3월 26일에 서울 서초구 소재의 강남포럼에서 열린 이번 서임식은 바다기사단 출범 1년을 기념하고 첫 기사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대면행사로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서울 바다기사단 운영위원들과 기사로 임명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사단 약사 보고 및 간략한 승급제도 설명, 서임식이 이어졌고, 21년의 운영경과를 보고하고 22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바다기사단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은 그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길이 없던 기존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다.

앞으로 바다기사단 내 많은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들이 제출한 데이터들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다양한 해양쓰레기 문제해결 가이드가 되기를 기대한다.



▲ 승급자에게 제공된 상징물품(플래그, 방수네임택, 손수건과 기사단 로고가 새겨진 스트랩)



▲ 바다기사단 서임 기념 촬영



▲바다기사단 원탁회의 모습

바다기사단(OCEAN KNIGHTS) 참가자 모집

바다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가진 역량과 장비로 하늘에서, 물속에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직접 해양쓰레기를 감시하고 기록하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오염을 줄이고 예방하고자 하는 기사들을 모집합니다.

바다기사단 설명서

https://drive.google.com/file/d/1dLg3cqSkwm4w_h8g-YGcfsWnCxvtTGsv8/view?usp=sharing

바다기사단 참가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lKp4Pluj4IEg07JXSVG4CBtXB5i0VpjfUUbhV8Zi81Raa1_sQ/viewform

기타 문의 사항 oceanknights1@gmail.com





‘오션스 40’ 강사 양성 과정, 4월 28일까지 참가자 모집

해양쓰레기 교육을 전담할 강사 양성 교육 개설

박은진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책임연구원 | ejpark@osean.net

전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진, 영상, 문헌 등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에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에서는 2019년에 진행했던 ‘오션스 20’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오션스 40’ 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 오션스 20에 참가해 과정을 수료한 스무 명의 강사들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 기관 등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해양환경, 특히 해양쓰레기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는 많지 않고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해양쓰레기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문을 두드리면 된다.

교육 안내

- **주관:**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 **교육일정:** 2022년 5월~7월
 - Part 1: 5월 14일(토)~15일(일) 오프라인 대면 강의
 - Part 2: 5월 20일(금), 6월 17일(금), 7월 8일(금) 온라인 비대면 강의
 - Part 3: 7월 22일(금)~23일(토) 오프라인 대면 강의
 - Part 4: 강의가 없는 금요일 온라인 실전강의 실습
- **장소:**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생태탐방원(경남 통영 소재), 온라인 줌
- **인원 및 대상:** 40+α
 - 오션 회원
 - 해안쓰레기 조사 관련 유경험자
 - 해양환경 관련 강사, 바다해설사 경험자
 - 해양쓰레기에 관심있는 누구나
- **준비물:** 노트북 필참, 개인 컵, 야외 활동복, 세면도구 등
- **수료기준:** 총 60시간 중 90% 이상 참여
- **참가비:** 20만원(숙식비 포함, 오션 회원은 50% 할인)

▪ **연수 후 혜택:**

- 수료증 수여와 교육공동체 형성
- 강의 자료에 대해 오션 전문가들의 감수 서비스 제공
- 강의 보충용 전문 자료, 디자인, 인포그래픽 등의 제공
- 오션 운영 교육사업과 국제 연안정화 행사에 투입(강사비 지원)
- 기초 강의 수요처에 파견

모집 신청 안내

▪ **모집기간**

- 4월 4~28일: 신청 접수
- 5월 2~3일: 선발 심사
- 5월 4일: 최종 선발 안내 공지

▪ **신청방법:** 오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4월 4일 신청페이지 오픈)

▪ **선발기준**

- 전 일정 참가 가능한 사람 우선 선발
- 신청서의 참가동기를 토대로 평가



▲ 2019년 진행된 오션스20의 참가자들, 쓰레기 없는 행사를 위해 각자의 식기를 챙겨왔다.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초안, 합의 없이 4차 정부간회의 마감

올해 8월에 있을 5차 회의에서 협약 초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목표로 다짐

이세미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 crhee@osean.net



▲ 제4차 회의의 마지막날 대표단 및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정부간회의 의장 레나 리(Rena Lee)

유엔총회는 2017년 12월 24일에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하,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을 추진할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GC)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결의안 72/249). 2018년 9월에 열린 1차 회의를 거쳐, 2019년 3월에 2차 회의 그리고 2019년 8월에 3차 회의를 마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늦춰진 4차 회의가 올해 3월 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었다.¹ 유엔해양법협약에 입각할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의 초안을 합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이번 회의는, 공해상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근래 가장 중요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다.

¹ <https://www.un.org/bbnj/>

두 주에 걸쳐 진행된 4차 회의는 많은 양의 중요한 주제를 다뤘다. 공해상 생물자원 활용에 대한 이익 공유와 해양 보호 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area-based management tool, ABMT), 해양 유전 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그리고 역량 개발 및 해양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를 하며 도출된 합의점을 찾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도 파악했다.²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이 채택된다면, 이미 현존하는 협약 및 협정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에 관한 뜨거운 토론이 있었고, 이 중 몇몇의 참여국은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이 지역어업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를 포함한 현존하는 기존 협정들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³ 두번째 주에는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의 대한 논의와 함께, 생태학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⁴

참여국과 관련 대표자들은 대면 회의가 주는 상호작용의 용이함 덕에 논의하기가 수월 하다고 기쁨을 표한 반면, 아쉽게도 협약의 초안을 합의하기엔 아직 협상할 부분이 꽤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오는 5월 초 4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포함된 협약 초안이 참여국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8월에 제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⁵ 현재 공해는 1.2%만이 보호받고 있을 뿐, 그 외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항해하거나 조업 및 과학 연구를 할 수 있다.⁶ 이렇게 위태로운 공해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하며, 본 협약으로 인해 공해에서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 유발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공해에서 행하는 조업으로 인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보다 법적 규제로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해양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의 초안이 8월이라도 통과되어 여름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길 필자와 오션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²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7Mar2022>

³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11Mar2022>

⁴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17Mar2022>

⁵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18Mar2022>

⁶ <https://amp.theguardian.com/environment/2022/mar/10/un-ocean-treaty-is-once-in-a-lifetime-chance-to-protect-the-high-seas>

439회 오션세미나

오염부터 해결책까지 - 제4장 :
도전, 대응, 혁신, 해법, 기회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의 인간 건강, 생태계, 경제, 사회적 피해 영향 진단

이종명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 jmllee@osean.net

2022년 3월 15일 제439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오염부터 해결책까지: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의 전 지구적 평가 보고서'의 제4장을 다뤘다. 제4장은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의 심화에 맞서 국제사회와 국가, 그리고 산업계 등이 어떤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진단했다. 관련 국제협약과 자발적 노력, 연구 개발의 현황과 격차 그리고 추진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원문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21. From Pollution to Solution: A global assessment of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 Nairobi.
<https://www.unep.org/resources/pollution-solution-global-assessment-marine-litter-and-plastic-pollution>

4.1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산업, 사회, 정책 현황

전세계 플라스틱 산업의 규모는 2020년 580억 USD에 이를 만큼 커졌다. 그런데 이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관련 정보의 부족이다.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등에서 발행하는 온실기체(GHG)의 배출량은 현재는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지만 2040년에는 1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대응 활동도 늘고 있는데, 산업계 재활용 노력이나 유엔의 지역해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1이 해양쓰레기 줄이기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협약들도 해양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시작했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로테르담 협약은 화학물질, 스톡홀름 협약은 지속성유기오염물질(POPs), 런던협약은 해양 투기 등과 관련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업, 식량농업기구(FAO)는 수산업에서 해양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 기구(WTO)는 플라스틱의 무역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플라스틱 경제 지구 선언(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선언에서는 플라스틱의 제거, 재사용, 신전달 모형, 대체 물질, 폐기물 수집과 재활용, 적절한 폐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실용성과 규모 확대가 관건이며, 폐기물 관리 인프라의 강화도 저개발국가 등에서는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근본적 체계 전환을 이룰 때 2040년까지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80%까지 감량이 가능하다. 기존의 국제협약이나 개별 국가 단위에서 진행된 노력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지구적 정책 조화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협약’이 필요하며, 그것은 규제, 유인, 재정, 보고, 표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4.2 관리, 입법, 조정, 협력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관련된 연성법적 수단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 양식, 호놀룰루 전략 등이 있다. 유엔환경계획 산하의 지역해 프로그램도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의 유해 화학물질과 비닐봉지 등에 대한 규제가 좋은 사례이다. 동남아(ASEAN) 지역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통합적인 관리 과정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EU에서는 플라스틱 전략, 순환경제 사업계획, 일회용 플라스틱 규정 등을 수립했다.

국가들의 대응에서는 주요 발생국이 오히려 법제나 계획이 부족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지구적 공유제 문제를 유발한다. 입법은 주로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봉지, 그리고 마이크로비드 등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U가 해변쓰레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지 품목을 정하고 있는것이 눈에 띈다. 폐기물의 가격 책정 수단이 없다보니 그 비용이 외부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적 수단은 세금, 부담금, 예치금, 보조금 등이 있는데,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한 활용이 필요하다.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의 습득이 행동의 변화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생분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4.3. 산업 해법, 환경 기술, 혁신

지구화된 플라스틱 산업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플라스틱 재료의 가격이 매우 낮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무분별한 사용과 버리는 행동, 그리고 부실한 폐기물 관리가 발생한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의 1/3이며, 98%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된다. 포장재는 생산량의 36%이지만 폐기물에서는 46%를 차지한다.

대중들 사이에서 반플라스틱 정서가 확산되면서 산업계의 대응 정책도 늘어나고 있다. 재활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폐기물의 혼입과 용도의 제한성이다. 반면, 기술 발전과 법적 요구 등은 기회 요인이 된다. 세계적으로 해양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활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안물질의 개발은 생물 재료 기반, 생분해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환경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이전 혹은 다른 문제의 초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의 순환성 구축을 위한 3R, 5R, 7R 등 접근이 확대되고 있는데, EU의 순환경제전략이 대표적이다. 플라스틱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물 디지털 여권(4 passport), 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이 필요하다.

4.4 연구 개발

UNEP의 2016년 보고서는 이 분야의 연구 개발 현황을 진단했다. 연구는 주로 플라스틱의 특성, 원천과 경로, 분포와 운명(생분해), 모니터링(조화, 자동), 모델링, 영향(미세플라스틱, 식품, 건강), 사회적 영향과 동인, 경제적 영향, 수산업, 플라스틱의 가치평가 등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책, 관리, 모니터링 연구는 활발한데 비해 위해성 평가는 저조한 편이다. 지역적으로는 유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에서도 모니터링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간 건강과 생물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가진 불확실성 때문에 학제간 연구, 통합적 접근(자연기반 해법, 생애주기, 순환성)이 필요하다.



OSEAN 2022년 4월 세미나 공지

안녕하세요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430여 회의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여 왔고,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그 결과를 해양쓰레기 관계자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과학 지식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진행해 온 세미나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며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매월 첫 번째 주 세미나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도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또한 오션의 지식 나눔 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 3. 28
홍선옥 두 손 모아

참가 신청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osean@osean.net)로 신청해 주세요. 논문을 보내드립니다.

결과 정리

세미나 과정은 녹화한 뒤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한글로 정리하여 월간 '오늘의 해양쓰레기'를 통해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일정 변경

부득이한 상황으로 세미나를 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주 일정이 취소되고 다음 일정은 공지된 대로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세미나 하루 전날(월요일) 오후에 게시판에 변경 공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의

미리 개설된 원격 세미나실이 담당자의 실수나 네트워크의 사정으로 인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osean@osean.net로 메일을 주시거나 055-649-5224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OSEAN 세미나 일정

4월 5일 10:30 AM 제 442회 오션세미나

기후 변화와 해양플라스틱 오염 사이의 근본적인 연관성

Helen V. Ford, Nia H. Jones, Andrew J. Davies, Brendan J. Godley, Jenna R. Jambeck, Imogen E. Napper, Coleen C. Suckling, Gareth J. Williams, Lucy C. Woodall, Heather J. Koldewey, 2022. The fundamental links between climate change and marine plastic pollution,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806, 150392

4월 12일 10:30 AM 제 443회 오션세미나

유엔환경계획 글로벌 공약 2021 진행 보고서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21. The Global Commitment 2021 Progress Report, ELLEN MACARTHUR FOUNDATION 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 Charity Registration No.: 1130306 OSC Registration No.: SC043120 Company No.: 6897785

4월 26일 10:30 AM 제 437회 오션세미나

대규모의 캐리비안 해양생태계(CLME; Caribbean Large Marine Ecosystem)에서 해양 쓰레기/플라스틱 쓰레기의 오염 현황: 1980-2020

La Daana K. Kanhai, Hamish Asmath, Judith F. Gobin, 2022 The status of marine debris/litter and plastic pollution in the Caribbean Large Marine Ecosystem (CLME): 1980-2020, Environmental Pollution, 300,118919

회의실 링크

us02web.zoom.us/j/84205413993?pwd=OTNoWUN6UTBwK21JYWtWcnFMaHNkdz09

※ 오션의 화요 정기 세미나는 되풀이 회의로 예약되어 매주 링크 주소가 같습니다.



이 달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해양쓰레기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심만큼이나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뉴스를 소개합니다.

"유엔 플라스틱 규제협약 협상기간, '2년의 면죄부' 아냐"

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9

[출처] 뉴스펍권 | 2022.03.05 | 최나영 기자

청주 서원구 특색사업 '담배꽂초 수거보상제'

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6856

[출처] 중부매일 | 2022.03.16 | 장병갑 기자

'상괘이 폐사' 잇따라...그물 탈출장치 의무화 시급

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2031319214159465

[출처] 전남일보 | 2022.03.15 | 조진용 기자

비닐 먹고, 마스크에 걸리고...쓰레기에 괴로운 갈매기

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61

[출처] 뉴스펍권 | 2022.03.16 | 임병선 기자

환영합니다 !

이번 달 새로 회원 가입해 주신 분을 소개하고 가입인사를 공유합니다.
보다 뜻깊은 활동으로 후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박미선, 고문현 회원님 회원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박미선 회원님의 가입 인사 전달합니다.
바다를 지키는 많은 활동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길 바랍니다.

고문현 회원님의 가입 인사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실대 고문현입니다.
오션에 가입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세계 최고의 오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에 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오션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연구와 조사 사업을 통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보태어 주시는 에너지로 여러분과 함께 시민과학의 기반을 다지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멀리 계시면서도 언제나 믿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회비를 내 주신 회원님들

강대석, 강료화, 강민구, 강성길, 강정훈, 고선화, 고진필, 공필재, 곽연희, 곽유상, 곽태진, 구교승, 권담비, 권미양, 권정은, 김경신, 김기림, 김기만, 김기범, 김도근, 김동원, 김석현, 김선동, 김성우, 김성은, 김소영, 김양균, 김여훈, 김영미, 김영은, 김영일, 김영준, 김영춘, 김용환, 김은정, 김정아, 김종덕, 김종범, 김지혜, 김지환, 김초희, 김태연, 김태훈, 김태희, 김태희, 김해기, 김향희, 김현지, 김호상, 김호상, 김희종, 남정호, 노현정, 로라킴, 류동희, 류영완, 류종성, 목진용, 문관용, 문신임, 문효방, 민병걸, 박경화, 박동민, 박명관, 박미경, 박솔, 박안수, 박영규, 박연자, 박요섭, 박윤경, 박은진, 박인숙, 박주영, 박준건, 박준용, 박지혜, 박진아, 박철민, 박출이, 변효진, 서영욱, 서정은, 선호경, 성훈근, 손석현, 손성민, 손현준, 송영경, 송종원, 시지훈, 신소리, 심원준, 안명덕, 안병덕, 안성원, 안순희, 양수민, 오경희, 오은애, 오은지, 오정근, 오정순, 오창영, 원종호, 유영주, 유찬민, 윤동영, 은자경, 윤현정, 이강만, 이광재, 이규태, 이동규, 이문숙, 이보경, 이보경, 이석중, 이승현, 이영호, 이요셉, 이유리, 이원영, 이인숙, 이인식, 이정은, 이종란, 이종명, 이종수, 이주연, 이정민, 이정미, 이지아, 이진석, 이찬원, 이철용, 이태식, 이현주, 이현진, 임세한, 임운혁, 임정은, 임지예, 임진아, 임채원, 임희희, 임희근, 장미, 장원근, 장은영, 전일구, 전평화, 전현수, 전홍선, 전홍표, 정경필, 정민경, 정수경, 정임철, 정지현, 정지혜, 정춘구, 정형욱, 정호승, 조갑자, 조성수, 조성익, 조현숙, 조홍연, 주재영, 진주, 최나현, 차용택, 최명애, 최승만, 최영석, 최월숙, 최윤숙, 최은정, 최정식, 최주섭, 최지연, 최필종, 최희정, 하경도, 하인주, 한기명, 한나진, 한동욱, 허낙원, 홍상희, 홍선욱, 홍성민, 홍성진, 홍승표, 홍원표, 홍준성, 황대호, 황선주, 황열순, 황청희, 황혜진

2월 후원해주신 기업

코스파, TS트릴리온, 포스팀(네이버해피빈), 효성, 드림오션네트워크, 리와인드, 허니랩

• 회원가입과 후원 바로가기 www.osean.net/support/support_01.php •

회비 / 기부금 계좌

농협 301-0051-2766-11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E-mail osean@osean.net

Tel 055-649-5224

Fax 0303-0001-4478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솔카운티 101동 210호 (우53020)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은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입니다. 해양환경 중에서도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동시에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민과 기업 등 해양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 고자 합니다. 오션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대표 홍선욱 **연구소장** 이종명

연구원 이종수, 정호승, 김여훈, 이세미, 박은진, 장윤정, 이유리, 강민구

이사 강대석, 이인식, 시지훈, 이규태, 김기범

상임고문 김인환, 최주섭

예술 감독 김정아

교육 프로그래머 김태희, 이종호

전화번호 055-649-5224

홈페이지 www.osean.net

이메일 osean@osean.net

카페 cafe.naver.com/osean

인스타그램 [@osean_net](https://www.instagram.com/osean_net)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솔카운티 101동 210호 (우 53020)

저작권은 본사에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 기사를 인용할 때는 아래와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월간 뉴스레터 '오늘의 해양쓰레기' 통권 144호 2022년 3월호, 홍선욱(편집)

O·S·E·A·N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오션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